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瑀洙
編輯人兼主 幹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http://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2008년도 시조시향 엄숙히 봉행

甲洙 전 장관 · 惠洙 전 총리 헌관으로 참사
휴일의 묘역에 전국에서 3천여 일가들 운집



시조시향 봉행사진(元敎)

2008년도 무자(戊子)년 「시조 태위 시 위양공(始祖 太尉 諡威襄公) 시향이 지난 10월 25일(토) 상오 11시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소재 시조묘소에서 전국의 3천여명 후손들이 참사(參祀)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올해 시향에는 역사상 최초로 청주한씨 문중에서 3연속으로 국무총리(조선조 영의정에 해당)에 기용되어 한민(韓門)을 빛낸 전·현직 총리 3명이 헌관으로 참사하기로 했으나, 전 총리 惠洙일가가 아헌관으로 참사했으며, 전 농림부장관 甲洙일가가 초헌관으로, 충북총친회장 章燾일가가 중헌관으로 참사했다.

당초 헌관으로 참사하기로 했던 현 총리 昇洙일가는 마침 이명박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유중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헌관으로 참사하지 못했으며, 전 총리 明洙일가는 해외에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헌관으로 참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시향은 그 동안 음력 10월1일에 봉행해 왔으나, 국내

280여 성씨 중 어느 성씨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명의 전·현직 총리 헌관」이라는 역사적인 시조시향을 위해서는 휴일이 불가피하여 「올해에 한해 시조시향일을 10월 하순의 휴일로 한다」는 지난 2월28일 정기총회에서의 만장일치 의결에 따라, 올해 시향을 토요일이며 휴일인 10월25일에 봉행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시조시향일을 휴일로 변경한 배경에는 직장에 다니는 청장년들과 청소년 학생 후손들의 많은 참사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었는데, 올해의 시향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청장년 후손들의 참사가 눈에 띄었으며, 많은 일가들은 “휴일에 시향을 봉행하면 아무래도 젊은 후손들이 참사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조 위양공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태생으로 청주방서동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하여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에서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서기 918년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철원에서 즉위할 때 공을 세운데 이어 태조 2년에는 평양성을 축성하는데 주역을 맡았으며, 태조 11년(928년)에는 왕건이 후백제 견훤(甄萱)을 정벌할 때 정벌



시조시향의 헌관들, 왼쪽부터 갑수, 덕수, 광훈일가(사진 元敎)

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하고 종군하여 전공을 세워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문하태위(門下太尉)에 올랐다.

<p>◆시조시향 무자년 제관분방</p> <p>초헌관(初獻官) 甲洙 전 농림부장관 아헌관(亞獻官) 惠洙 전 국무총리 중헌관(終獻官) 章燾 충북도총친회 회장 집례(執禮) 東燮 문정공파 회장 대축(大祝) 星燮 중앙회 부회장 도진설(都進設) 一煥 중앙회 제전부회장 진설(陳設) 聖愚 경기 연천군 알자(謁者) 輪洙 중앙회 제전부장 봉행(奉香) 相玉 전북고창군 회장</p>	<p>봉료(奉爐) 相南 서울특별시 사준(司樽) 善鎬 강북도봉중친회장 봉직(奉爵) 京烈 서울특별시 전직(奠爵) 仁錫 서울시 강남구 집사(執事) 三郎 서울특별시 집사(執事) 相善 서울특별시</p> <p>◆4위단(位壇) 제관분방(祭官分榜)</p> <p>초헌관 2세 : 상신 서울시 3세 : 갑수 대전시</p>	<p>4세 : 명수 강원도 5세 : 윤동 경주시 아헌관 2세 : 상락 서울시 3세 : 상도 대전시 4세 : 상원 강원도 5세 : 석기 경주시 중헌관 2세 : 희수 서울시 3세 : 기석 대전시 4세 : 기수 강원도 5세 : 영식 경주시 집례 相皓 서울시</p>	<p>대축 愚仙 중앙회 부회장 도진설 輪洙 중앙회 제전부장 진설 相根 서울 강동구 알자 一煥 중앙 제전부회장 봉행 聖愚 연천군 봉로 相根 천안시 사준 奎華 전 중앙회 상무 봉작 明澤 하남시 전작 大熙 고양시 집사 壽甲 강화읍 집사 相勳 강화읍</p>	<p>◆산신제(山神祭) 제관분방</p> <p>헌관 百賻 전 문정공파회장 집례 一煥 중앙 제전부회장 축(祝) 永惠 서울시</p> <p>◆시향일 접수</p> <p>奎華 전 중앙회 상무 광전 경기중친회 상무 大熙 고양시 相根 전 강동구회장</p> <p>◆촬영 元敎 중앙회 재정부장</p>
--	---	--	---	---

효자, 효녀, 효부 등 15명 표창 瑀洙 회장 “종사도 시류 따라 개혁 필요”



시조시향일에 표창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들-앞줄과 둘째줄(사진 元敬)

중앙종친회(회장 瑀洙)는 지난 10월25일 시조시향 봉행에 앞서 오전 10시 시조묘역내 4위단 앞 잔디광장에서 3천여명의 일가들이 운집한 가운데 식전행사를 갖고 노부모를 극진히 모셔 후손들에게 경료효친 사상의 고양과 함께 실천적 귀감이 되어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아온 효자, 효녀, 효부 등 15명을 표창하는 시상식을 거행했다.

▶수상자 명단 별항

瑀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문이 3연속으로 총리를 탄생시킨 후 처음으로 봉행되는 오늘의 시조시향은 그 어느때보다도 영광되고 영예로운 종사이며, 이러한 영광은 오로지 이 자리에 모

시고 있는 시조 할아버님의 음덕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개혁되어가고 있는 시대 조류에 맞추어 우리 종친회도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앞서가는 시대조류에서 뒤떨어지고 끝내는 낙오되고 말 것”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瑀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식전행사에서 瑀洙회장은 이어 “정기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올 시향을 휴일인 10월 4번째 토요일로 정한 것은 세 전·현직 총리가 현관으로 참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불복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백겸(百謙) 청주목사(牧

使)가 부임한 1605년 이후 시조시향은 중춘(仲春·음력 2월) 초정일(初丁日)에 봉행되어오다가 1930년대부터는 음력 10월6일, 1960년대부터는 음력 10월3일,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력 10월1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시향 일도 시대의 조류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 왔고, 또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회장은 현 총리인 尹潽일가가 현관으로 참사하지 못하는데 대해 “현관으로 참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모든 준비를 했으나 이명박대통령이 갑자기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부득이 참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한 후 “우리 한문에서는 시조시향에 어느 성씨보다도 가장 많은 후손들이 참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니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조시향 초현관으로 참사한 전 농림부장관 甲洙중앙회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참사하여준데 대해 감사하며 특히 오늘 효자상, 효녀상, 효부상 등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고 “역사상 초유의 3연속 총리를 배출한 우리 한문은 어느 성씨보다도 우수한 명문거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내년 시향 때는 더 많은 후손들이 시조묘를 찾아 참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조시향 아현관으로 참사한 전 총리 惠洙중앙회고문은 “오늘 표창된 수상자들에

게 축하를 보낸다”고 격려하고 “우리 한문의 자랑은 우애와 사랑,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박애정신이며, 저는 일가 어른들의 격려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36년간 큰 탈 없이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 (15명)

◆효자상 (2명)

- ▲한두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3리)
- ▲한경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1리)

◆효녀상 (2명)

- ▲전순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한정숙 (충북 옥천군 온천읍 광야리)

◆효부상 (11명)

- ▲윤영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한선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한선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 ▲김기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김순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 ▲손기매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 ▲이경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천의동)
- ▲오복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한태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이길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 ▲조금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2008년 12월 개통예정인 수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수단비는 8천원 입니다.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원 입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요령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2월15일 생, 1980년2월15일 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귀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평(合平)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민(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수(金泰洙) 김해민(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子),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효(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현수회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자(箕子)조선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거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瑀洙 중앙종친회장은 최근 종보 편집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주한씨는 8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설명해줄 수 없었던 그동안의 비애(悲愴)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찾

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瑀洙회장은 특히 “수단(收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이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정의 내력을 동영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 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할자(裔子·이름)만 알면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02) 720-6370~1, 9215(팩스 번호)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25일의 시조시향을 차질 없이 성황리에 봉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시조시향은 올해에 한해 종전의 음력 10월1일을 변경하여 휴일에 봉행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성공적이었으며, 우리는 이번 시향을 통해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는 큰 수확을 올렸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오로지 임원님들과 모든 일가 여러분들의 단합된 애중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번 시향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변경이 결의된 시조시향일에 대해, 일부 일가들이 불복과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보기 드물게 3,000여명의 일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시향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문의 단합된 모습이며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시향을 휴일에 봉행한 결과, 청장년 직장인, 학생층의 어린 후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휴일이었던 지난해 시향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휴일이면 내년에도 오겠다” “묘가 왕릉 같은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 임금님이었어?”라는 어린 학생들의 물음과 대화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문의 전통과 미래를 짊어질 젊은 후손들이 많이 참석하여 송조효친의 정신을 가다듬어 간다면 그 이상의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 문중에서 3연속 총리 탄생은 초유의 일로, 우리 한문의 크나 큰 명예요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분의 총리를 현관으로 참사하게 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시향일을 휴일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현 총리인 昇洙일가는 이 명박대통령의 외국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참사를 못했습니다만, 주중이면 참사하기 어려웠던 전 총리 惠洙일가와 전 농림부장관 甲洙일가가 현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시향일이 휴일이면 공직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한문을 빛내고 있는 후손들의 참사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일가 여러분!
예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 없이 많은 관행과 관습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사에서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류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은 변화시켜야 하고 또한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류에 뒤떨어지면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내년 2월28일로 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재임 중 여러 면에서 부덕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고 투철한 송조애중정신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임원님들 그리고 일가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년 시조시향 행사가 이원화되고 종친회의 분열 양상을 가져온 것은 명문거족인 한문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훼손시킨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하던 일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장학회관 건립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2005년 시향일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비를 시조묘역에 건립했습니다만 회관건립기금 목표액 55억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5년째를 맞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의 구축사업도 근래에 와서는 활발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어있는 오늘날 젊은 자손들이 족보에 쉽게 접근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완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또한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는 시조묘역 성역화를 겸한 역사전시관의 추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선조님들의 역사적 업적 발굴사업을 본격화했고, 노력 끝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조묘로 들어가는 위양로 직선화 및 재실앞 주차장 확장과 재포장 등 묘역의 극히 일부에 대한 정비사업도 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모든 사업들은 각급 지역종친회와 각 종파 임원들, 그리고 80만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중정신의 뒷받침을 받는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일가 여러분!
이제 부족했던 점이 많은 본인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덕망과 능력을 지니신 훌륭한 분을 추대하고 임원님들과 80만 일가분들이 변함없는 송조애중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모든 숙원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종사는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어느 종파에 치우치거나 종사를 빙자한 이기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과 선조님들의 위업과 송조효친정신을 젊은 후세 자손들에게 잘 계승시켜 한문을 빛낼 수 있도록 하는 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회관 건립으로 장학금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우수한 자손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젊은 자손들이 쉽게 족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조속히 완성하고, 젊은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시조묘역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많은 중요 종사들을 완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되고 있는 중요한 종사들은 결코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장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중단은 바로 좌절이고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평소 종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올 시조시향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신 임원님들과 모든 일가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 현 수 드림

4위단 4위선조 시향도 봉행



시조시향에 이어 4위단 시향 봉행(사진 元敎)

10월 25일 오전의 시조시향에 이어 시조묘역내 4위단에서도 4위 선조를 추모하는 시향이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1면

4위 선조는, 시조하 2세조 용호군교위공 휘 영(龍虎軍 校尉公 諱 穎), 3세조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조 상의 직장공 휘 혁(尙衣 直長公 諱 奕), 5세조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兪)이다.

위 4위선조는 오랜 풍상(風霜)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전(記傳)될 뿐 유택(幽宅·묘소)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시조묘역내에 추모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시향일에 시향을 봉행하고 있다.

제14회 만해제 흥성 생가지에서 거행 瑁洙중앙회장 등 일가 20여명도 참석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1879~1944)선사(禪師)를 추모하는 제14회 만해제가 지난 9월26일 충남홍성군결성면성곡리 생가지와 홍성군 일원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제추진위원회 주최 흥성문화원 주관 아래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중앙종친회에서 瑁洙 회장, 春植예빈윤공파회장, 星燮부회장 등 20여명의 임원들과 일가들도 참석한 만해제의 첫날은 오전에 만해 바로알기(전보삼 교수), 우담바라합창, 독경, 헌다, 헌화분향을 한데 이어 오후에는 만해 이야기가 있는 공양, 작은 공연(뮤지컬 갈락콘서트)이 있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독도 및 독립운동가 사진전시회도 가졌다.

흥성에서 출생한 만해는 선사(禪師), 독립운동가, 시인, 사상가로 한국근대에 큰 발자취를 남겨, 우리 청주한씨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겨레의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선각자이다.

제전위원회 시향준비상황 점검 29명 일가들 봉사단으로 수고

중앙종친회는 지난 9월29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瑁洙 회장, 春植, 百賸, 一煥, 星燮부회장, 輪洙 제전부장, 奎華 전 상무, 鍾仁 상무, 南玉총무 등이 참석한 제전위원회를 열고 2008년 무자년 시조시향(10월25일) 봉행을 차질없이 거행할 수 있도록 실행절차, 봉사단 업무분담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시향일의 업무분담에 따라 봉사에 참여한 24명의 일가들은 시향일 하루전에 시조묘역에 내려가 행사 전반에 걸친 예행연습을 하는 한편 앰프, 현수막 설치 등 각자의 분담업무를 집행했으며, 시향 당일에는 업무분담에 따라 안내와 질서유지 등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청주에 거주하는 경식, 두환, 정교, 근덕, 재룡일가 등 5명은 4일간이나 봉사했다.

현수회장은 시향을 무사히 마친 후 지난 10월28일 서울 시내 모식당에 봉사단 일가들을 초청, 만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 봉사단 일가들은 다음과 같다.

- ▲百賸
 - ▲星燮
 - ▲一煥
 - ▲成龍
 - ▲東億
 - ▲輪洙
 - ▲奎華
 - ▲元敎
 - ▲동열
 - ▲聖愚
 - ▲三郎
 - ▲壽甲
 - ▲大熙
 - ▲善鎬
 - ▲相南
 - ▲永惠
 - ▲相善
 - ▲鍾仁
 - ▲南玉
 - ▲경례
 - ▲상분
 - ▲明澤
 - ▲응환
 - ▲영남
- (24명)

전·현직 국무총리 일가 초청 오찬회



전·현직 국무총리 일가 초청 오찬회가 끝난 후, 임원들 기념촬영(사진 원고)

중앙중친회(회장 琇洙)는 지난 9월2일 정오 서울시내 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3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한 문중에서 역사상 최초로 3연속 국무총리에 올라 한문을 빛낸 明淑, 惠洙, 昇洙(현 총리) 일가 세분을 초청한 오찬회를 갖고 명문거족으로서의 청주한씨의 무궁한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현 총리인 昇洙일가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불참하여 서운한 감도 있었으나, 전 감사원장 勝憲(변호사)고문,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역사학자 永愚 일가, 숙명여대 총장(9월10일 취임) 榮實(여)일가가 참석하여 오찬회를 한층 더 빛내 주었다.

琇洙 회장은 참석자 전원을 일일이 소개한 다음 인사말을 통해 “청주한씨 문중에서의 3연속 총리 탄생은 역사상 초유의 쾌거로, 이 전·현직 세분의 총리일가를 현관으로 모시는 한편 보다 많은 청소년 자손들의 참사(參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28일 정기총회에서 올해에 한해 시조시향을 휴일인 10월25일(토)에 봉행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다”고 밝히고 “역사상 어느 성씨에서도 이루지 못한 3연속 세 총리의 현관 참사를 위해 결의된 정기총회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일가들이 불복하는 행위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총리 明淑일가는 답사를 통해 “당에서의 대통령후보 경선과 총선거에서 일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며,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고 “제가 장관으로 재임할 때 한때는 국무회의(구성멤버 약 17~8명)에 한씨가 8명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한문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일가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전 총리 惠洙일가도 답사를 통해 “사무관으로 출발하여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는동안 곳곳에서 문중의 어른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총리직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일가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 勝憲일가는 축사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라는 4자성어 중 앞부분의 ‘이심’을 선창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뒷부분의 ‘전심’을 화답하도록 유도하는 이색적인 축사를 하여 이채를 띠었다.

이어 숙명여대 총장 영실일가는 인사말을 통해 “조상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으므로, 종친회의 존재와 종사는 당연히 우리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되며,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하고 “한문에서는 여성들이 특출하여 많은 왕비를 배출했고 근래에 와서는 명숙총리께서 우리 한씨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물꼬를 텃다고 생각되어 존경한다”고 말했다.

◆현수 중앙회장 찬조금 357만원 헌성

한편 중앙중친회 현수회장은 이날의 전·현직 국무총리 초청 오찬회 식대 357만원 전액을 찬조금으로 헌성했다.

榮實일가 숙명여대 제17대 총장 취임



한영실일가가 지난 9월10일 숙명여자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청주한씨의 명예를 빛냈다. 영실일가는 이날 교내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100년 전통의 숙대 총장으로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양성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과 연계해 인문학적 교양교육과정

을 내실있게 개편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교수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제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영실일가는 1990년 숙명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부경대를 거쳐 1997년 숙대 교수로 옮겨 한국음식연구원장, 산학협력단장, 사무처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2005년부터 3년간 KBS 프로그램 ‘비타민’의 ‘위대한 밥상’ 코너에 출연, 건강정보를 소개하여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편 영실일가는 지난 10월13일~19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및 시민의 숲에서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농수산물 축제인「KOREA FOOD EXPO(KFE) 2008」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潤錫일가 부천시의회 의장에 선출 선재일가 부의장, 상호일가 의원으로 활약

30세손인 한운석일가가 지난 7월 제5대 경기도 부천시의회 후반기(임기 2년) 의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선재일가도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상호일가는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2004년4월부터 2007년4월까지 부천시중친회장을 지낸 윤

석일가는 고려대 화공과를 졸업한 후,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상공회의소 상공위원, 부천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 부위원장 등 여러 공직을 역임했거나 재임중에 있으며, 현재 부천화공약품상사를 경영하고 있다.

雲齋孟錫거사 효자비 제막



雲齋孟錫거사의 효자비(紀蹟碑) 제막식

雲齋 孟錫거사(장자 能洙)의 효자기적비(紀蹟碑) 제막식이 지난 7월12일 그가 살았던 남원시주천면 주천리에서 남원향교 金永泰전교를 비롯 유림과 관계기관장 및 친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의 효열은 대한충열록에 등재되었으며 마을 앞 대로변에 세워져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했다. (송고 한용수)

문열공파 신임회장에 선교일가



문열공파(충성공파, 이양공파) 중흥은 지난 9월27일 서울 용산 소재 ‘용사의 집’에서 종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선교(충성공파 회장)일가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희천고문의 축사에 이어 청한장학회 가입문제, 조상의 시향(감찰공 10/31, 충성공 10/30, 이양공 11/1)에 보다 많은 자손들이 참석하는 방안 등 당면문제를 토의한 후 문열공 종파 중흥(충성공파, 이양공파)의 단합을 결의하는 한편 한기선과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른 후속대책을 회장단에 위임기로 했다.

태안군 신임회장에 상봉일가

충남 태안군중친회는 지난 8월15일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인수회장 후임으로 상봉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상진일가와 병윤일가를, 총무에 상량일가를 각각 선임했다. (송고 병윤)

일균일가 대통령 표창 수상

미조 레이더기지 기지장으로 근무하는 일균(55)일가는 지난 10월1일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장비관리와 병력관리, 작전임무수행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일균일가는 남해군 서면 현촌에서 출생하여 74년12월 해군에 입대한 후 85년11월 육군준위로 임관되어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91년2월 고향인 남해의 미조 레이더기지 기지장으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희일가 공학박사 취득



한종희(30)일가가 지난 7월 서울대학교에서 의용생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종희일가는 경북 구미중친회 이사 상구일가의 차남으로 1997년 경북과학고를 졸업한 후 자연계열 경북 수석으로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 동 대학 석사과정을 거쳤다.

「靑蓮公파 世葬地 석조물 연구」 성남문화원에서 제6회 학술토론회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청연공(靑蓮公)파 종회 후원으로 지난 10월10일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世葬地) 석조물 연구」라는 주제로 제6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 문화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①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문수진 신구대학 교수) ② 「울동(栗洞) 청주한씨 세장지의 석조물 -韓憲(한회), 韓述(한술), 韓濬(한숙) 등 묘소의 석조물을 중심으로」(손환일 경기대학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③ 「韓智源(한지원) 묘역의 석물 고찰 -석물과 묘표의 서체 분석을 중심으로」(손미숙 경기대학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④ 「韓明勳(한명욱) 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권영애 경기대학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⑤ 「韓韓(한전)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이재목 경기대학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⑥ 「울동 청주한씨 가계 정리」(한동영 성남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등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성남시 분당구 울동의 청주한씨 묘역은 청연공 한지원(1514~1561)을 비롯해 6대에 걸친 조선 중기의 묘역으로, 당시의 석조물 변천사와 기록문화의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는 문화유산이다.



시조시향에 참사한 3,000여 청주한씨의 자랑스러운 후손들,
 시향 봉행에 앞서 시조묘역내 4위단 앞 잔디광장에서
 효자, 효녀, 효부상 시상식등 식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원교)

시조묘소 진입 위양로 직선화 완공
-시향 봉행에 앞서 개통식 거행-



시조묘소 진입 위양로 직선화 완공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원교)

시조 묘소로 진입하는 위양로(威襄路) 직선화 2차 공사가 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완료되어 10월25일 시조시향 봉행에 앞서 오전 9시30분 시향에 참사한 수 많은 일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정식으로 개통되므로써 시조묘역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조경이 한결 밝아졌다.

위양로 직선화 1차공사는 지난 2001년 공사비 3억5,000만원으로 공군초소 옆에서 시조묘소 50m 앞까지 개설, 포장했으나 예산관계로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이번의 2차 공사로 완결되었으며, 위양로 직선화 공사에는 총 6억 5,000만원이 소요 되었다.

개통식에서는 琿洙 중앙 회장을 비롯하여 시조시향 초헌관인 甲洙고문(전 농림부장관), 아헌관인 惠洙고문(전 국무총리) 등 중앙회 고문, 회장단 등 11명의 임원들이 테이프를 커팅했다. 현수회장의 적극적인 섭외 노력으로 확보된 3억원의 예산으로 시공된 이 2차 공사는 위양로 직선화 뿐만 아니라 재실 앞 주차 광장을 대폭 확장하여 위양로와 함께 아스팔트로 재포장, 도로 중앙에는 주행차선을 치고 주차광장에는 주차선을 그어 깔끔하게 단장했으며, 주차광장의 외곽과 위양로 양면으로는 철제 펜스(fence·방벽)까지 세워 묘역으로 진입하는 위양로의 면모를 일신했다.

추태부회장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명섭부회장 200만원 / 택수, 성룡부회장도 각각 100만원씩

중앙중친회 楸泰부회장은 광천단위장학회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9월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기탁, 총 2,108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3,000만원 이상이 조성되면 단위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 明燮중앙회부회장(안산시·명신기업주식회사 대표)이 200만원, 澤洙중앙회 부회장(군산시 회장)과 成龍중앙회 조직전담부회장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기성전 가을 제향 봉행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건국한 문성대왕(文聖大王·箕子)을 추모하는 2008년 가을 제향이 지난 10월3일(음력 9월15일) 충북괴산군도안면노암리 소재 기성전(箕聖殿)에서 중앙중친회 현수회장을 대리한 충북도중친회 韓熙회장등 일가들과 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성전문화재현창회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기성전 제향은 1년에 두 번 음력 3월15일과 9월15일에 봉행된다.

2008년도 고려대전 대제엄수
한문의 조상 여섯분 위패 봉안

2008년도 고려대전(高麗大殿) 대제(大祭)가 지난 10월26일 오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위치한 대전에서 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 주관으로 엄수되었다. 고려시대 34대왕과 고려조의 충신, 공신, 유현(儒賢) 349위의 위패가 봉안되어있는 이 고려대전에는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 위양공을 비롯하여 사숙공, 서원군, 서재공, 문경공, 몽계공 등 여섯분 조상의 위패가 봉안되어있다. 중앙중친회에서는 春植예빈윤공파회장, 백춘부회장, 鍾仁상무가 참석했다.

뿌리공원에서「효문화 뿌리축제」
한문에서 충성공파 선교회장 참석

조상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효문화 뿌리축제」가 지난 10월11~12일 이틀동안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에서 거행되었다. 뿌리공원은 각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충효사상, 주인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공원이기도 하며, 청주한씨는 '창조'라는 작품명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충성공파 선교회장이 뿌리축제와 9월26일에 열린 뿌리문중협의회에 참석했다.

한상구일가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한상구(84·삼아알미늄 명예회장)일가가 지난 10월14일 서울대가 제정한 '제1회 서울대학교 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후학 양성과 연구력 향상, 대학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한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장학기금납부 내역(9~10월)

Table with 4 columns: 고유번호, 이름, 금액(9~10월), 누계.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9-10 month period.

개인증보비(9~10월)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individual contribution amounts.

시조시향에 헌성금 총 1,278만원

지난 10월25일의 시조시향에서는 107명의 일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총 1,278만원을 헌성했으며, 珥珠 중앙회장이 200만원, 문정공파(회장 東億)에서 50만원, 현령공파(회장 원섭)에서 50만원을 각각 헌성했다.

(헌성일가명단 별항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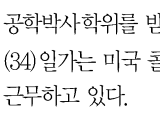
太洙부회장 파전금 200만원 헌성 相瑞, 갑수부회장도 100만원씩

중앙총친회 太洙부회장(청년담당)이 파전금으로 200만원, 相瑞부회장(서울시 회장)과 갑수부회장(대전시회장)이 각각 100만원씩 헌성했다.

시조시향에 암소 1마리 기증 相玉고창군회장, 두 아들은 박사



전북 고창군중친회장 相玉일가는 지난 10월25일에 봉행된 시조시향 때 쓰드록 암소 1마리를 중앙총친회에 기증하여 많은 일가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평소 중친회 사업에 적극적인 상욱일가는 자제들의 면학에도 남달라 두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장남 중섭(37)일가는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특허청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둘째아들 민섭(34)일가는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계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파전금(9~10월)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9-10 month period.

운영회비(9~10월)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9-10 month period.

단체증보비(9~10월)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9-10 month period.

일반찬조헌성금(9~10월)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9-10 month period.

시조시향일 당일 헌성금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ay of the symposium.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ay of the symposium.

Table with 2 columns: Name, Amount (천원).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ay of the symposium.

준호, 구인일가 시조묘 좌우에 계단 설치 윤수일가 주선으로 사재 150만원 헌성



준호(31세손·참의공파), 구인일가(사진·33세손·양야공파) 두 일가는 올해 시향을 앞두고 150만원의 사재를 헌성, 시조묘 좌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3~4계단의 화강암 돌계단을 축조하여 많은 중친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조묘 바로 앞 중앙에 만들어진 계단으로 오르내렸으나, 시조묘 정면의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輪梨(청성군파·중앙회 제전부장) 일가의 주선으로 두 일가께서 사재를 들여 이 일에 흔쾌히 나섰다고 한다. 위 세분의 일가들은 승조애중정신이 투철하여 평소 중친회의 대소 중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종보비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한문의 소식지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 '청주한씨보'는 지난 2006년 11월 1일로 창립 30주년을 넘기고, 이제 다시 희망찬 '청주한씨'의 미래와 함께 약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30이립(而立)이라고 했으니 홀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종보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독립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까. 오랜 풍상을 겪어온 종보는 그래도 청주한씨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될 귀중하고도 유일한 매체(媒體)로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 번 보내주시는 2만원의 '종보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보'가 중앙총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최상급 용지에 전면 '컬러'로 그 모습도 날로 화려하게 개선되어가면서 제작비의 상승 압박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송금하려면 번거로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구 중친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모아서 단체로 보내면 편리할 것입니다. 단체로 종보비를 보낼 때는 모임의 사진과 성함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종보에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을 독려하신다면 종보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보는 홀로 서고 싶어 합니다. 거둬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현수(중앙총친회장) · 편집인 한동원(종보담당 부회장)



〈시조시향일의 이런 일, 저런 일〉

올 시향에는 청장년과 어린 후손들 많이 참가
 “휴일이기에 왔다. 내년에도 휴일이면 또 오겠다”
 “묘가 꼭 왕릉 같다. 시조할아버지 임금이었나요?”

- ▶ 올 시조시향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청장년층과 어린 학생 후손들의 참가가 많았으며, “그것은 휴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시조시향을 봉행하던 날, 지난 10월25일은 쉬는 토요일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놀토」라고도 한다.
 이날 어린 학생중에는 “시조묘가 왕릉 같은데 우리 한씨가 그렇게 유명하나요? ”묘가 꼭 왕릉 같은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 임금님이었나요?” “휴일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는데 내년에도 휴일이면 또 오겠다”는 등의 대화와 질문을 하는 어린 자손들도 있었다고 전해주는 일가들도 있었다.
- ▶ 한문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보살핌과 시조의 음덕이 함께 내려진 탓일까. 시향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척인 천안지방에는 비가 내렸는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 묘역의 하늘은 쾌청하기만 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인근의 각지에서 시조묘역에 걸려온 가족들의 전화에서는 “여기 비가 내리는데 그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느냐”는 통화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 올 시조시향에서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는 3,000여명의 일가들이 참가한 청주한씨의 단합된 모습이었다. 예년과는 달리 4위단의 정면과 측면의 잔디 광장에 준비된 2,000개의 의자에는 전국에서 참사하러 온 일가들이 편안히 앉은채로 효자, 효녀, 효부들을 표창하는 식전행사에 참가했다. 의자가 부족하여 의자 둘레에 서있는 일가들도 많았고, 재실 마당과 재실 밖 넓은 주차광장과 위양로의 곳곳에도 수많은 일가들이 몰려있었다.
- ▶ 꼬불 꼬불 휘어져 답답하기만 했던 시조묘역으로 들어가는 약 300m에 이르는 ‘위양로(威陽路)’가 직선으로 확 트이고, 재실 앞 주차광장도 확장·재포장 된데다가 날씨가 쾌청하여 참가한 일가들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위양로가 직선화되고 흰 색깔로 새로히 차선까지 그려진 수백미터의 진입로 한편으로는 70여대의 대형관광버스와 100여대의 승합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재실 앞 주차광장까지 만차로 꽉 메워져 크게 봄볕다.
- ▶ 해마다 시향때면 봉사단 일가들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올해도 시조묘역 현장에서 시향준비를 위해 4일간이나 봉사한 일가(청주 거주 일가 5명)들이 있었는가 하면 중앙회 차원에서 20여명의 일가들이 하루전에 현지에 내려가 요소 요소에 3개의 프래카드와 앰프, 스피커 설치, 2,000개에 달하는 의자 배열, 먼거리에서 새벽에 도착하는 참사일가들을 위한 10여개의 대형국통·막걸리통 준비와 20개의 테이블 배치, 계관분방포 부착, 접수대 준비 등을 끝내고 오후 6시경 묘소앞 장명등에 전원을 연결하고 시향을 봉행하는 예행연습까지 마치니 어느새 밤 8시가 넘어갔다. 준비하면서 겪은 더 큰 고통은 시향일 새벽의 추위였다. 비가 내린 탓인지, 이슬이 내린 탓인지, 4위단 앞 잔디광장에 배열된 2,000개의 의자는 그대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물기로 젖어 있었다. 새벽 5시에 기상한 봉사단은 각자 갈래를 들고 의자의 물기를 닦기 시작했으나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시러워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 해가 뜰때까지 기다려 일을 마칠 수 있을 정도였다.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현수 중앙회장 내외분 희수연·고희연 350여 종친들과 하객들이 축수(祝壽)



한현수 중앙종친회장의 희수연(喜壽宴) 및 부인 김혜숙여사의 고희연(古稀宴)이 지난 9월21일 정오 350여명의 종친들과 친지들의 축수(祝壽)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존·뫼뫼 웨딩홀에서 거행되었다.
 전·현직 세 총리가 보내온 축하화환을 비롯 수 많은 화환으로 가득 메워진 이날의 축하연에서는 東億일가의 현수회장 약력 소개에 이어 현수회장에게 종원 일동의 이름으로 된 축하패가 증정되었으며, 相旭충남회장은 축사를, 希天삼재회장은 축하약자 등 3점을, 元教(사진작가)일가는 백사슴 사진액자를, 건동(화가)일가는 목란화 액자를 각각 증정했다. 그 밖에도 많은 하객들로부터 축하품이 증정되었다. 星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연은 이어 陽命상임고문과 希天회장의 축사, 축하케익 커팅이 있는 다음 노래자랑 등 여흥으로 축하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날 주최측에서는 모든 하객들에게 주방용품을 기념품으로 사레했다.

중앙종친회 내방 일가

- 相一 서울 노원구
- 大熙 경기 고양시
- 基植 서울 영등포
- 澤龍 강원 원주시
- 재철 충북 충주시
- 潤海 서울 금천구
- 기창 서울 동대문
- 동억 문정공파
- 관희 인천 부평구
- 상용 경기 남양주
- 元教 서울 마포구
- 윤수 서울 송파구
- 相根 서울 금천구
- 景열 서울 성북구
- 鮮敬 대전시 서구
- 昌昊 대구시 동구
- 奉錫 서울 동작구
- 명석 서울 구로구
- 상근 서울 강동구
- 國淵 서울 강북구
- 大錫 경기 양주시
- 文熙 경기 고양시
- 哲永 문정공
- 재수 경기 화성시
- 우영 서울 마포구
- 南鮮 서울 서초구
- 晚熙 서울 금천구
- 槿福 경기 시흥시
- 경희 강원 인제군
- 동술 서울 강동구
- 백춘 서울 성북구
- 奎華 서울 강동구

부담 한국삼자문위원 별세

본회 자문위원 한국삼 일가께서 향년 89세를 일기로 10월 27일 오전 9시 병환으로 영면하셨다.

서울청장년회 도봉산 등산

서울청장년회



서울청장년회(회장 元教) 회원 16명은 지난 10월12일 도봉산 포대능선에 올라 정성에서 원교회장이 제공한 와인 한잔씩을 나누고 청주한씨종친회와 청장년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우렁차게 외쳤다. 원교회장은 이 자리에서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이라는 정성권씨의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여 회원들의 공감을 받았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 살면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배움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의 손해가 울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배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슴이 가장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한잔을 마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용기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 어린 헌성(獻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성금, 회비(임원), 장학기금, 종보(宗報)구독료 등의 헌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 중앙종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임원들의 회비와 100만 일가들의 헌성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회비, 일가들의 헌성금과 종보구독료의 헌성이 활성화 된다면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을 보존·발전 시키고, 자손들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종친회의 여러 역점사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한문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헌성은 우리 청주한씨 명문을 이어갈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지원될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장학기금을, 종친회의 활성화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회비, 종보구독료를 헌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재)청한장학회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 (회비, 헌성금, 종보비)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장학기금)

장학회관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장학기금 출연하여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남겨 주십시오.
삼한갑족 · 명문거족의 영예는 장학사업만이 유지해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만으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회관 건립 출연금 약정제도 취지문

1.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동량(棟梁)의 거재(巨材)를 우리 한문에서 배출하기 위해 청한장학회 창립 6년만에 많은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 우리 청주한문은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후손들이 높은 학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선조들의 위업과 전통을 연면히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한문을 빛내고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 금융저축에 의한 이자수입이 부동산 임대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동일한 액수의 기금으로 장학회관을 건립한다면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의 몇배가 된다. 취득세, 소득세 등도 면제되므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 장학회관 건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출연금 약정제'를 도입 약정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헌상한 증원에 대해서는 회원증 발급, 고유번호 부여 등과 함께 기념비와 장학회관에도 출연액수에 따라 명세록 또는 동판 명세록에 성함을 각인하여 그 공적을 영구히 후세에 대대로 전하고자 한다.

장학회관 모금 목표 및 방향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 회관건립 소요액 총 55억원

장학회관 건립 모금방향

- 직접납부 또는 약정3년 분할납부 가능
- 3천만원부터 단위장학회 설립
- 기부, 증여, 유증에 의한 출연 환영(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단위장학회 설립 내용

- 출연자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증서도 직접 수여.
- 대대손손 이어가는 명예로운 유산(상속권 지속)
- 해외 거주 일가 출연 환영

모금참여방법

기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의 참여가 한문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약정방법

- 전화접수 : 02-720-6370~ - 방문접수 : (재)청한장학회 및 중앙종친회 사무실(동일)
- Fax 접수(소정양식) : 02-720-9215 - 온라인접수(소정양식) : www.chongjuhan.net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 (재)청한장학회 - 지로 : 회보

장학회관 건립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 100만원 이상 : 장학회관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 ▶ 1,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 ▶ 3,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3. 단위장학회 설립
- ▶ 1억 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3. 단위장학회 설립
- ▶ 5억 원 이상 : 1. 총별 동판 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2.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3.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4. 단위장학회 설립
- ▶ 10억원 이상 : 1. 회관내 "명예의 전당"에 흉상을 세우고 이력사항을 기록하여 후손들의 사표(師表)로 영구히 보존
2. 총별 동판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3.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4.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5. 단위장학회 설립

장학기금 출연시 세제혜택

개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범위내 공제혜택 ·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1항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2005년도 장학기금 20억 달성 기념비 제막광경

건축개요

알찬 사업준비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실패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
든든한 바위 같고, 편안한 고향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웨딩홀, 회의실, 만남의 장소, 전시장 등—

- 대지위치 : 교통이 원활한 신도시 지역
- 연면적 : 3,306평방미터(1,000 평)
- 건축면적 : 331평방미터(100평)
- 건축규모 : 지상 10층, 지하 3층
- 주요구조 : 철근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30대

일반시설(계획)

- 회원교류시설 : 만남의 장소, 명예의 전당, 재단사무실
- 회의실 : 각종 모임 및 회의장소
- 임대시설 : 은행,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업무용사무실 등
- 수익시설 : 웨딩홀, 연회실 등

운영개요

여러분이 출연하는 건립기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장학회관의 역할

- 한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는 만남의 장
- 세계속의 한문으로 한문을 발전시키는 지원센터 기능
- 청한장학회의 장학생들이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장학회관의 기대효과

- 장학회관 완공시 매년 수익원의 순수의 예상
- 수익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역사연구비 지원 및 문화사업비 등으로 전액 사용

모금개요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55억원—

100만 국내외 일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합시다.

- 홍보 발송시 동봉된 무정액 지로 이용
- 신용카드 :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 자동이체(CMS) : 인터넷뱅킹 가계은행에 의뢰
- 직접방문 :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방문 납입(주식, 부동산 등)